『해동문헌총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Haedong-munheon-chongnok*, or the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Korean Books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1. 서 론
2.「해동문헌총록」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2.1 표제표시
2.2 권수표시
2.3 저작시대표시
2.4 저자명표시
2.5 저작역할어표시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3.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김휴(金烋)가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저작시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해동문헌총록』은 그 목록의 기술방식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김휴가 나름대로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의 엔트리를 작성한 점은 한국목록기술사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要語: 김휴, 『해동문헌총록』, 목록기술방식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www.kci.go.kr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Haedong-munheon-chongnok*, a classified annotated bibliography compiled by Kim Hyu in Joseon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regarding title, volume number, written age, name of author,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and noteworthy examples. It was a limitation that indicated the lack of unity and coherence i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Haedong-munheon-chongnok*. However, it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Kim Hyu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his own methods of description.

Key words: Kim Hyu, *Haedong-munheon-chongnok*,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ww.kci.go.kr

1. 서 론

조선시대에는 여러 해제 목록들이 편찬되었다. 그 가운데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해제목록은 경와 김휴(敬窩金烋, 1597-1638)가 편찬한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1638)이다. 이 『해동문헌총록』은 김휴가 스승 여헌 장현광(旅軒張顯光, 1554-1637)의 권유로 1616년(광해군 8년)에서 1638년(인조 16년)까지 약 22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安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명문대가에 소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이다. 동 목록의 편찬목적은 임진왜란 때 비교적 피해를 덜 본 그 지역의 문헌목록을 편찬하여 후대에 문헌을 징빙(徵憑)하고, 고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 그러나 당시 김휴가 중국의 『문헌통고 경적고(文獻通考 經籍考)』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일대 목록을 편찬하려는 야심을 지녔으며, 그가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인 만큼 여기에 수록된 책들은 안동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전력을 다해 당시까지 편찬된 서적을 조사한 후 그 가운데 후대에 남길만한 서적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던 것이다.

이 『해동문헌총록』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채용하지 않고, 김휴가 기존에 나온 목록들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서적을 분류하였다. 동 목록에는 20개의 유목(類目)에 619종의 서적이 수록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들 저록들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해동문헌총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주진,[2] 윤남한[3] 등이 간략하게 해제를 기술했으며, 본격적인 연구로는 배현숙,[4] 김약슬,[5] 박인호,[6] 김건

1) 裵賢淑, "海東文獻總錄에 대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5), 5-36. 金烋, 『해동문헌총록』 海東文獻錄序 (서울: 학문각, 1969).
2) 강주진, 해동문헌총록해제와 간행서, 『해동문헌총록』 (서울: 학문각, 1969), 1-7.
3) 윤남한 해제, "金烋 著 海東文獻總錄," 『한국학』 2(74. 3), 5-6.
4)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5).
5) 김약슬, "경와집에 대하여," 『서지학』 7(1982), 121-125.
6)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2006), 65-98.

www.kci.go.kr

곤,[7] 리상용[8] 등의 것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해동문헌총록』의 저자와 그의 가계, 찬술동기, 분류체계의 분석, 수록된 고려시대의 문집, 수록 서적의 질적 평가, 불가서적 등에 관한 것들이다.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 방식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그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해동문헌총록』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해동문헌총록』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록기입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여 다음에 보이는 저록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예:
> 筆苑雜記二卷 本朝徐居正所著 蓋法歐陽公歸田錄 又取國老閑談 東軒雜錄 而爲之 皆博採吾東之事 上述祖宗創垂之大德 下及搢紳間言行之可法者 以至政事得失 文章高下 國家典故 閭巷風俗 史官所不記者 備錄無遺[9]

위의 예를 분석하면, '필원잡기(筆苑雜記)'는 표제를, '이권(二卷)'은 권수를, '본조(本朝)'는 저작시대를, '서거정(徐居正)'은 저자명을, '소저(所著)'는 저작역할어를 '蓋法歐陽公歸田錄 … 備錄無遺'는 해제를 각각 가리킨다. 즉, 『해동문헌총록』의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대체로 표제, 권수, 저작시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마지막 사항인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7)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재 고려문집 연구: 부전문집을 중심으로," 『藏書閣』 18(2007. 12), 57-88.

8) 리상용, "『해동문헌총록』 수록 도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2011. 9), 169-202.
리상용, "『해동문헌총록』 불가서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0(2011. 12), 471-511.

9) 金烋, 『海東文獻總錄』 (서울: 학문각, 1969), 404. 筆苑雜記.

www.kci.go.kr

2.1 표제표시

『해동문헌총록』에서는 표제표시에 있어서 어제서(御製書)에 대해 '어제(御製)'란 관제(冠題)를 표제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도 있고, 후기(後記)한 경우도 있으며, 그 표시 대신 묘호(廟號)를 부기한 경우도 있다. 서명기술에 있어서 그 외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예:
御製屯亨詩
仁廟御製

2.2 권수표시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다. 표제를 기술한 다음에 소자(小字)로 권수표시를 했는데, 아주 간혹 권수표시를 대자(大字)로 기술한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저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했다.

예:
桂苑筆耕二十卷 四六集一卷[10)]
高麗詩三卷
銀臺集 李仁老所著

권수표시가 있는 경우, 접미어는 '권(卷)'을 썼으며, 간혹 '부(部)' 또는 '질(帙)'을 쓴 경우도 있고,

10) 권수표시의 소자(小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에 한해서만 권수표시를 소자로 표기하였다.

www.kci.go.kr

예:
崔氏文集三十卷 崔致遠所著
涵虛堂得通和尙顯正論一部 / 釋己和所著
動安居士集一帙 李承休所著

권수를 잘 모르는 경우에 '수권(數卷)'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으며,

예:
南陽集 數卷 白貢華所著

권수표시를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권수표시와 더불어 주기적인 성격의 내용을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牧隱集 詩三十五卷 文二十卷 李穡所著
鐵城聯芳集 平齋詩一卷四十首 容軒詩一卷二百三十一首 二公遺像三世墓誌
入于 族譜冠其首 杏村李嵓 平齋李崗 容軒李原
企齋集 騷賦詩三卷 文一卷 補遺詩一卷 遺藁詩賦一卷 凡六卷 申光漢所著
恥齋遺稿 上下二卷 上卷關東錄 下卷行狀

2.3 저작시대표시(著作時代表示)

전체적으로 저작시대표시는 대부분의 저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했으며, 그 표시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저작시대표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조명(歷朝名)을 서두에 기입하여 시대구분을 한 다음에 그 시대에 해당하는 저록을 배열한 경우가 있다. 이 사례로 제가시문집류(諸家詩文集類)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1) 사례에서 시대구분을 진한글씨로 표시한 것은 쉽게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며, 원문에는 진한글씨로 표기되지 않았다.

www.kci.go.kr

예:
諸家詩文集類 新羅
崔氏文集 崔致遠所著
桂苑筆耕二十卷 四六集一卷 崔致遠所著
餬本集五卷 崔承祐所著

高麗
樂道郊居集 求善集 姜邯贊所著
金富軾文集 金富軾所著

諸家詩文集類 本朝
鐵城聯芳集 杏村李嵓 平齋李崗 容軒李原
靑坡集 李陸所著

이처럼 제가시문집류의 경우, 신라(新羅), 고려(高麗), 본조(本朝) 등으로 먼저 시대구분을 한 후에 각 시대에 해당하는 저록을 배열하였으며, 예악류(禮樂類)의 경우에도 고려(高麗), 본조(本朝)로 시대구분을 한 후에 해당 저록을 배열하였다.

2) 동일유목(分類項目)내에서 시대가 바뀔 때에만 그 첫 저록에 한해서 역조명을 표시하고 두 번째 이하의 저록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사기류3(史記類三)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史記類三의 예:
櫟翁稗說前集二卷後集二卷 **高麗**李齊賢所著
筆苑雜記 **本朝**徐居正所著
慵齋叢話 成俔所著
梅溪叢話 曺偉所著

3) 명찬서의 경우 저작시대를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예:
三國史記 高麗仁宗命金富軾撰進
高麗國史 我太祖開國初命鄭道傳鄭摠等撰進
編年綱目 忠宣王命閔漬修撰

www.kci.go.kr

2.4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저자명은 상기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저자의 성+실명(姓+實名)'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호(姓+號), 성+호+명(姓+號+名), 성+호+선생(姓+號+先生), 호+성명(號+姓名), 호+선생(號+先生),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姓+號:
益齋亂藁 李益齋所著
周易觀象篇 金河西所著

姓+號+名:
永慕錄 柳西厓成龍所撰
朝鮮國風俗考異 金鶴峯誠一

姓+號+先生:
中庸九經衍義 李晦齋先生所撰
庸學註疏 本朝鄭一蠹先生所著

號+姓名:
太極問答 栗谷李珥所著

號+先生:
奉先雜儀 晦齋先生撰
自省錄 退溪先生所著

官職名+姓名:
延禧宮錄士金希寧所撰

www.kci.go.kr

2) 왕족인 경우에는 접미어 '대군(大君)' 또는 '군(君)'을 붙여서 저자표시를 한 경우도 있다.

예:
匪懈堂集 安平大君所著
　　(필자註: 조선 세종의 셋째아들)
四雨亭集 富林君所著
　　(필자註: 조선 세종의 손자)
醒狂遺稿 朱溪君所著
　　(필자註: 조선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증손자)

3) 저자명을 피휘(避諱)하거나, 김휴가 속한 영남학파의 대학자인 경우 성만 쓰고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빈 칸으로 둔 경우도 있다.

예:
騎牛子集 ㅗ行所著
　　(필자註: 실은 [李]行)
退溪先生文集 李　 所著
晦齋先生集 李　 所著

4) 불가 서적의 경우,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글자를 관기한 후에 저자명을 기술하였고, 저자명표시 기술 형식은 주로 '석(釋) + 법명', '석(釋) + 호 또는 시호' 등의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석(釋)' 대신에 '사문(沙門)'이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釋+법명'인 경우:
法界圖書 釋義湘所著
淸虛堂集 釋休靜所著

'釋+호 또는 시호'인 경우:
千峰詩集 釋卍雨所著
圓鑑集 釋圓鑑所著
牧牛子詩集 釋普照所著

www.kci.go.kr

'沙門+법명'인 경우:
天台四敎儀 高麗沙門諦觀所錄

5) 일반 부녀자(婦女子)의 저자명은 '본관+성씨(本貫+姓氏)'로, 왕후의 경우는 '존호+왕대비(尊號+王大妃)'의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예:
일반 부녀자의 경우:
蘭雪齋集 陽川許氏所著

왕후인 경우
內訓 我仁粹王大妃躬撰

6) 명찬서(命纂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조+묘호+명+신하명+찬진(歷朝+廟號+命+臣下名+撰進)'으로 표시하였다.

예:
三國史記 高麗仁宗命金富軾撰進

그러나 이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을 표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묘호+명+신하명+수찬(廟號+命+臣下名+修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編年綱目 忠宣王命閔漬修撰

'아+묘호+명+신하명+찬진(我+廟號+命+臣下名+撰進)'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고,

www.kci.go.kr

예:
高麗國史 我太祖開國初命鄭道傳鄭摠等撰進
治平要覽 我英廟命儒士撰進

'신하명+봉교찬 또는 봉교찬진(臣下名+奉敎撰 또는 奉敎撰進)'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으며,

예:
諺解救急方 凡上下二卷 許浚奉敎撰
國朝儒先錄 柳希春奉敎撰進

해제의 내용에서 저자의 저술과정을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新義 高麗睿宗在東宮 讀論語 金緣爲侍讀學士纂新義進講
編年通載 睿宗覽編年通載 命洪灌撰集三韓以來事跡以進
諭善錄 我光廟命梁誠之爲敎養世子 歷採經傳及本朝寶錄可法可戒者以啓

7) 저자명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해제의 내용에서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選文掇英 李山海就文選書抄錄其文之可法者
東國文鑑 金台鉉集國初以來文章
洪範皇極內篇補解 李純嘗致力於數學 著洪範皇極內篇補解
禮記日抄 魚孝瞻在集賢殿 進講禮記 仍博採諸家要說 解釋該貫

8) 저자 미상 저작인 경우, 저자명 대신 어떤 시대인의 것이라고 기입한 것도 있으며,

예:
稗官小說 高麗人所著

www.kci.go.kr

아예 저자명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으며,

예:
續文範
養蚕方

이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미상을 표기하였다.

예:
帝王歷年記 不知何人所撰
東國兵鑑 上下二卷 不知所撰時代名氏
類合 不知出於雖手

2.5 저작역할어표시

저작역할어는 '소저(所著)', '소집(所集)', '소서(所書)', '소편(所編)', '소찬(所撰)', '소작(所作)', '찬(撰)', '찬진(撰進)', '저(著)', '소록(所錄)', '수초(手抄)', '초출(抄出)', '채집(採輯)', '부집(裒集)', '록(錄)', '집(集)'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예:
益齋亂藁 李益齋所著
百家衣集 林惟正所集
韓石峯書帖 韓濩所書
農桑輯要 李喦所編
中庸九經衍義 李晦齋先生所撰
易圖 柳贇所作
年代曆 崔致遠撰
聖學十圖 退溪先生撰進
奉先諸儀 金鶴鳳誠一著
天台四敎儀 高麗沙門諦觀所錄
決訟要覽 金伯幹手抄大明律大典註解前後續錄各年受敎等決訟要語 編爲一卷
東國名宦錄 尹豊亨抄出輿地勝覽所記名宦錄 編爲一書 目曰名宦錄

www.kci.go.kr

李先生禮儀問答 鄭寒崗逑抄出退溪先生集中禮儀問答 分類編次 最便於考閱
四禮訓蒙 李恒福採輯禮經要語 編爲一書 名曰四禮訓蒙
氷玉亂稿 金殷卿裒集陳義貴金閔兩公平生雜詠 目之曰氷玉亂稿
彝訓錄 周愼齋世鵬錄其先考訓戒之辭
選粹集 高麗金九容集古人詩文若干卷 求名於牧隱 牧隱名曰選粹集

그러나 간혹 저작역할어를 부기하지 않고 저자표시만 한 경우도 있다.

예:
杏村法帖 李嵓
金生書帖 金生
黃上舍草帖 黃耆老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를 들어봄으로써 「해동문헌총록」의 목록기술방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6.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먼저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가 있으며,

예:
晉山世藁 通亭姜淮伯 玩易齋姜碩德 仁齋姜希顔
古今金鏡錄 李穡 李仁復所撰

www.kci.go.kr

2) 기행문의 경우, 함께 다녀온 사람들을 기록한 경우가 있으며,

예:
遊端石錄 萬曆甲戌 霽峯高敬命與葛川林薰 遊端石山所錄
遊松都錄 成俔與蔡壽許琛安琛曺偉及其猶子世明世源等 遊于松京 此其行錄也

3) 공저자의 이름을 서술형으로 기술하거나, 저자의 약력을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風騷軌範 成俔嘗在玉堂 與同僚權健安琛金訢李昌臣曺偉申從濩等撰集
孝行錄 高麗權溥年八十餘 與其子準 裒集歷代孝子凡六十四人 使其壻李齊賢著贊 名曰孝行錄 曾孫權近有註
三代目 新羅眞聖王 與角干魏弘通 常入內用事 仍命與大矩和尙修集鄕歌 謂之三代目云

2.6.2 동일 유목에서 동일저자의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이 한꺼번에 해제되었을 경우의 목록기술

동일 유목 내에 동일 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으로 그의 해제를 한꺼번에 한 경우, 먼저 각 저작의 서명을 모두 열기한 그 다음에 '병(並)' 자를 관기(冠記)하여 저자표시를 하고 있다.

예:
鷄林雜傳 花郞世紀 並金大問所撰

그러나 '병(並)' 자를 관기(冠記)하지 않고 그냥 저자표시만 한 경우도 있다.

예:
戊寅記聞 德陽日記 奇遵所著

www.kci.go.kr

3. 결 론

본 논문은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1638)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동문헌총록』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으며,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저작시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제표시는 어제서(御製書)에 대해 '어제(御製)'란 관제(冠題)를 표제 앞에 관기(冠記) 또는 후기(後記)한 경우, 서명 표시 대신 묘호를 부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권수표시는 물리적 권수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으로, 표제를 기술한 다음에 주로 소자(小字)로 권수표시를 했고, 대부분의 저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했다. 권수표시의 접미어는 '권(卷)'을 썼으며, 간혹 '부(部)' 또는 '질(帙)'을 썼다. 권수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권(數卷)'이라고 표시한 것도 있었다. 권수표시를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권수표시와 더불어 주기적인 성격의 내용을 함께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저작시대표시는 대부분의 저록에서 그 표시를 생략했으며, 그 표시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역조명(歷朝名)을 서두에 기입하여 시대구분을 한 다음에 그 시대에 해당하는 저록을 배열한 경우가 있었고, 동일유목(分類項目)내에서 시대가 바뀔 때에만 그 첫 저록에 한해서 역조명을 표시하고 두 번째 이하의 저록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저자명은 대부분 '저자의 성+실명(姓+實名)'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성+호(姓+號), 성+호+명(姓+號+名), 성+호+선생(姓+號+先生), 호+성명(號+姓名), 호+선생(號+先生), 관직명+명(官職名+名)

www.kci.go.kr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왕족인 경우에는 접미어 '대군(大君)' 또는 '군(君)'을 붙여서 저자표시를 한 경우, 김휴가 속한 영남학파의 대학자인 경우 성만 쓰고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빈 칸으로 둔 경우 등이 있었다. 일반 부녀자(婦女子)의 저자명은 '본관+성씨(本貫+姓氏)'로, 왕후는 '존호+왕대비(尊號+王大妃)'의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명찬서(命纂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조+묘호+명+신하명+찬진(歷朝+廟號+命+臣下名+撰進)'으로 표시하였으며, 저자명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해제의 내용에서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저자미상 저작인 경우 저자명 대신 어떤 시대인의 것이라고 기입하거나, 아예 저자명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저작역할어는 '소저(所著)', '소집(所集)', '소서(所書)', '소편(所編)', '소찬(所撰)', '찬(撰)', '소작(所作)', '찬진(撰進)', '저(著)', '소록(所錄)', '수초(手抄)', '초출(抄出)', '채집(採輯)', '부집(裒集)', '록(錄)', '집(集)'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으며, 간혹 저작역할어를 부기하지 않고 저자표시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의 경우, 공저자표시는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가 간혹 있고, 기행문의 경우 함께 다녀온 사람들을 기록한 경우가 있었다.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으로 그의 해제를 한꺼번에 한 경우, 먼저 각 저작의 서명을 모두 열기한 그 다음에 '병(並)'자를 관기(冠記)하여 저자표시를 한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휴가 편찬한 「해동문헌총록」이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해제목록이고 초고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목록의 기술방식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그가 나름대로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의 엔트리를 작성한 점은 한국목록기술사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주진. “해동문헌총록해제와 간행서.”『해동문헌총록』. 서울: 학문각, 1969. 1-7.

김건곤. “『해동문헌총록』 소재 고려문집 연구: 부전문집을 중심으로.”『藏書閣』 18(2007. 12). 57-88.

김약슬. “경와집에 대하여.” 한국서지학회.『서지학』 7(1982). 121-125.

김 휴.『해동문헌총록』. 영인본. 서울: 학문각, 1969.

리상용.『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리상용. “『海東文獻總錄』 수록 도서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169-202.

리상용. “『海東文獻總錄』 불가서적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 제50집(2011. 12). 471-511.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硏究.”『성곡논총』 7(1976). 580-598.

박인호.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선주논총』 9(2006). 65-98.

배현숙. “해동문헌총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5.

윤남한 해제. “金烋 著 海東文獻總錄.” 영신 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한국학』 2(1974. 3) 5-6.

한국도서관협회.『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역주홍씨독서록』.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www.kci.go.kr

www.kci.go.kr